

**세계동위원소대회(ICI) 국내유치를 위한  
기반조사연구과제 Kick-off Meeting 개최**



6월 15(화)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위탁받은 「세계동위원소대회(ICI) 국내유치를 위한 기반조사연구」과제(과제책임자: 채화목 협회장)의 킥오프회의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12인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책임자는 인사말을 통하여 제6차 ICI의 국내유치를 위해 동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ICI 국내유치를 위해 ICI의 자문위원회격인 IAC에 제5차 벨기에 개최대회전에 가입노력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여 중점 추진 ▲우리나라의 대회유치 및 개최능력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5차 ICI에서 홍보할 자료를 사전 준비하여 활용할 것 등의 의견에 참석 연구원 모두 합의하였다.

협회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활성화 차원에서도 세계동위원소대회(ICI)의 국내유치를 동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정부 및 모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한·사우디 SMART 협력 추진**

과학기술부는 6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이틀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사우디 공동위에 대표단을 파견, 양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SMART) 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 기술인력 훈련, SMART건 타당성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등 SMART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 도출하고 싸이클로트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방사성의약품

생산, 핵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청원 원자력국장은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UAE) 합단 부수상 초청으로 UAE를 방문, SMART 플랜트 건설 타당성 연구를 수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사우디와도 SMART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추진, 중동국가에 대한 원자력 기술수출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4차 국제 제4세대 원자력회의 한국유치**

과학기술부는 제4차 국제 제4세대 원자력회의(ICAPP2005: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의 2005년 5월 서울 개최를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ICAPP 회의는 미국원자력학회(ANS:American Nuclear Society)와 차별화하여 산업계 중심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및 2004년 미국에서 1차 및 3차 회의, 2003년에 스페인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6월 12(토) ~ 6월 18(금) 기간중 미국 피츠버그에서 ANS 창립 50주년 기념 대회와 더불어 개최된 제3차 ICAPP2004 회의는 전세계 20여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하고 발표논문수도 300여편에 이

르는 등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대한 높은 국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동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가능성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한편,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ICAPP2005는 한국원자력학회(KNS:Korean Nuclear Society, 회장 이은철) 주관으로 개최되며,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종재 사장이 대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 IAEA/INI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본격개시

과학기술부는 6월 17일(목)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ervice) 사이트와 동일한 호스트사이트(www.inis2.com)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통해 INIS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년 4월부터 시험서비스를 해왔으며, 시험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

계 INIS회원국(110개국, 19개 국제기구)에게 원자력분야는 물론 물리학·화학 및 생명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검색을 쉽고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등 국내외의 원자력분야 이용자에게 보다 신속한 국제원자력정보를 제공하게 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발전 홍보와 국제원자력정보 이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RCA회원국 국제협력전문가 워크샵 개최

RCA사무국(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은 6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대전)에서 17개 RCA 회원국 국제협력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은 IAEA의 후원하에 아·태지역의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으로서 1972년 6월에 최초 발효되었으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2002년 3월 한국에 설립된 RCA사무국이 주관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워크샵으로서, 회원국 국제협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IAEA가 지원하는 연건

약 250만불 규모의 기술협력재원을 기반으로 RCA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RCA사무국과 IAEA/RCA 사업조정관, 그리고 17개 회원국의 RCA 실무담당자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RCA사무국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아·태지역의 원자력기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 RCA 실무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CA사무국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태지역 원자력 과학기술 관련 정보 Hub-Site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샵은 RCA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사후과정 프로그램, RCA/KAIST 석사과정, RCA/KOICA(한국국제교류단) 학의학 인턴쉽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